

2012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관 및 출판교육기관 견학

정경희 전문원(연구조정실 자료편집팀)

1. 출장 개요

- (1) 출장자 : 정경희 전문원
- (2) 출장기간 : 2012년 10월 7일~10월 15일
- (3) 출장지역 :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 (4) 출장목적
 - 2012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Frankfurt Book Fair 2012) 참관 및 출판교육기관 견학
 - 세계 출판시장 및 도서 저작권 관련 트렌드 파악과 선진 출판·편집 관련 인력 양성 시스템의 노하우 습득

(5) 출장일정

일자	일정
10월 7일	인천 출발 → 파리 도착
10월 8일	ASFORED(Centre de formation du Syndicat national de l'édition) 견학
10월 9일	파리 서점가 자료수집 → 프랑크푸르트 이동
10월 10일	독일서적학교(Die Schulen des Deutschen Buchhandels) 견학
10월 11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관(8홀)
10월 12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관(포럼홀, 3홀)
10월 13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관(4홀, 5홀)
10월 14일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관(6홀) → 프랑크푸르트 출발
10월 15일	인천 도착

2. 출장복명 내용

(1) 2012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참관

1) 도서전 개요

- 명칭 : 2012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Frankfurt Book Fair 2012)
- 전시기간 : 2012년 10월 10일 ~ 10월 14일(5일간)
- 장소 : 프랑크푸르트 메세(Frankfurter Messe)
- 주최 : 독일출판서적상협회 전시박람회 주식회사(Ausstellungs- und Messe-GmbH des Börsenvereins des Deutschen Buchhandels)
- 개최 규모 : 전시장 규모 167,039m², 104개국 7,384개사 참가
- 전시분야 : books, periodicals, copyright, licenses, electronic media, education, art/illustration, comics, film and media, audio books,

creative industries

- 1949년에 시작되어 올해 64회를 맞은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출판사와 저작권 전문가 및 기자, 일반관람객 등 약 28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전시회임.
- 올해는 104개 국가의 출판 관계자들이 총 7,400여 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저작권 상담 및 거래
- 국가별 출판시장의 현황 및 출판시장과 전자책, 저작권 관련 세미나 개최
- 종이책뿐 아니라 전자책 기술, 영상 오디오북, 게임 등도 함께 전시
- 올해 주빈국은 뉴질랜드로 68명의 작가와 100여 명의 아티스트가 참가해 주빈국 문화행사를 펼쳤으며 내년 주빈국은 브라질임.

2) 주요 전시 및 행사

① 주요 전시 내용

- 3홀 : 소설과 비소설, 아동 및 청소년 미디어, 코믹스, 종교도서, 여행도서, 맛있는 갤러리
- [센터] 아동 도서 센터, 만화 센터 / [포럼] 아동과 청소년 관련 미디어 / [핫스팟] 아동과 e리딩
- 4홀 : 출판 솔루션과 도서 거래 서비스, 아트북, 과학기술의학 및 학술도서, 전문가 정보 센터, 교육
- [센터] 서적상 센터, 독일출판서적상협회 센터, 국제 도서관 센터/ [포럼] 출판제작 포럼, 교육/ [핫스팟] 출판서비스, 과학 전문 정보/ [전시] 오디오북 관, 교육출판 전시관, 미래 교실
- 5홀 : 국제관(International Publishers)

- [센터] 정치, 문학, 번역 / [포럼] 대화의 장 / 문화협력단체
- 6홀 : 저작권 에이전시 및 스카우트 센터, 프랑크푸르트 고서전
- [핫스팟] 모바일
- 8홀 : 국제관(International Publishers)
- [핫스팟] 디지털 혁신 / [스파크] 프랑크푸르트 스파크 무대
- 포럼홀 : 주빈국관 - 뉴질랜드 "While you were sleeping"
- 뉴질랜드 출판, 작가, 편집자, 교육 소개

② 주요 행사

- 201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내일의 독자들은 콘텐츠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 '어떤 트렌드가 표준 기준으로 발전할 것인가', '새로운 기술은 상상력을 제한할 것인가 그 반대일까?'라는 질문 아래 그 해답을 얻기 위한 세미나와 포럼을 진행
 - e-book 비즈니스 활성화 방법, 미디어 플랫폼의 모든 것 등의 주제
- 싱가포르, 아랍, 뉴질랜드, 브라질, 독일, 러시아, 인도 등의 국가별 출판시장 현황을 소개하고 각국의 변화된 출판 트렌드를 점검해 보는 세미나 개최
- 새로운 미디어 세대인 각국의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독서 및 학습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교육 관련 세미나 개최
 - 아동을 위한 앱과 e-book, 21세기 멕시코의 문화와 교육, 중동마켓에서의 아동 콘텐츠 라이선싱, EU 내 교과서 출판사 관련 세미나, 헝가리의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베를린 아동 출판사와의 만남 등

- ‘저작권 집중교육’, ‘출판마케팅 “제한된 예산, 최대의 효과”’ 등의 교육 프로그램 개최

3) 한국기업 참가 동향

- 한국은 올해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15회째 참가
 - 참가사는 2010년 75개사에서 2011년 48개사로 대폭 줄었으나 2012년에 67개사로 예년 수준을 회복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전시장 6.1홀에 한국관을 설치하여 900여 권의 책을 전시하고 국내 도서와 출판사 홍보 및 저작권 상담을 지원
 - 교원, 능률교육, 문학동네, 사회평론, 예림당을 비롯하여 한국문학번역원 등 국내 출판사 및 관련 단체 12개사가 참가
 - 그 외 길벗어린이, 나무숲, 마루벌, 시공사, 한솔교육 등 19개 출판사의 위탁도서를 전시
- 건축세계와 군자출판사 등 36개사는 개별적으로 부스를 설치
- 대한인쇄문화협회는 한국인쇄문화관을 조성하여 한국 인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출 상담
 - 1일 평균 200명, 총 1,000명이 방문했으며 직접참가 업체, 상담트레이닝 참가 업체, 위탁참가 업체를 포함해 총 160건 38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
 - 글로벌프린트팩은 30개 업체 90만 유로, 청아문화사는 40개 업체 120만 유로, 아시아프린팅은 30개 업체 80만 유로에 달하는 수출상담
-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올해 독자적으로 디지털관인 4.0홀에 전시부스를 설치, 운영

- 전자책 전문서점인 인프라웨어북스, 전자책 오픈마켓 유페이퍼, 전자책 콘텐츠 제작업체 아이이팝, 퍼블스튜디오, 성도솔루션, 와이팩토리, 엔파이스소프트 등 7개사가 전자책 관련 시스템을 전시
- 전자책 제작 솔루션 업체인 모글루, 넷앤티브이는 독자 부스 설치, 운영
- 인프라웨어북스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e-Pub 3.0 기반의 프리미엄 키즈 전자책을 포함하고 있는 팔라우(Palao) 서비스와 팔라우 저작툴을 소개하여 글로벌 대형 출판사와 유통사들의 주목을 받음.
- 아이이팝은 미국 B2B 최대 업체인 OverDrive와 긴밀한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계약하고 일본 라쿠텐에 인수된 Kobo와도 비즈니스를 긴밀화하기로 협의

4) 201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특징

- 출판사들의 참가는 다소 줄었으나 저작권 에이전트와 스카우트의 수는 작년 대비 4.4% 증가하여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저작권 거래를 위한 가장 활발한 장소로 여전히 각광받고 있음을 보임.
- 과거 영미출판사들이 모여 있는 전시관이 가장 활기가 넘친 데 비해 올해는 에이전시들이 몰려 있는 6.0관에 다양한 콘텐츠를 찾는 사람들이 몰림.
- 최근 스웨덴, 덴마크, 터키 등 북유럽과 중동 지역의 문학들이 유럽과 영미 출판시장에서 호평받으며 이들 지역의 저작권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 강국들이 출판 관계자를 대량으로 파견해 전시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여 주목됨.
- 신흥 강국들이 경제력 상승과 더불어 지식의 힘에 관심을 가지면서 콘텐츠 생산과 콘텐츠 유통의 최신 이슈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경주함.

- 2012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는 약 3,400개 이상의 이벤트와 각종 세미나가 열려 전 세계 종이책의 흐름과 전자책의 진화를 보여줌.
 - 올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은 “Sparks”라는 플랫폼을 각 홀에 제공해 신기술 및 디지털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
 - 아울러 신기술 및 디지털 관계사를 위한 6가지 분야의 디지털 플랫폼을 제시하고 모든 출판과 미디어 부문을 위한 미디어 컨퍼런스와 시장의 기회를 제공
 - 도서전 측은 도서전을 단순한 도서전시 및 저작권 거래를 넘어 전체 콘텐츠산업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스토리드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 ‘스토리드라이브’는 세계 각국의 출판, 영화, 음악, 게임산업, 소셜 미디어, 네티즌, 콘텐츠 개발자 등이 교류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
 - 올해 스토리드라이브에서는 ‘미디어 플랫폼의 모든 것’, ‘출판과 판촉의 만남’을 주제로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콘텐츠 유통의 활로를 모색함.
 - 전시장 6곳에 마련된 ‘핫 스팟(Hot Spot)’에서는 디지털 신기술과 전자책 단말기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었음.
 - 동영상과 가상현실게임 등과 결합한 인터랙티브 전자책이 출판의 새로운 영역으로 탐구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와 검색엔진을 활용한 마케팅 기법들이 출판의 새로운 톨로 등장
- 도서전은 예년보다 침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글로벌 출판사와 전자책 관련 대형 업체가 독립 부스를 설치한 것이 주목할 만함.
 - 구글과 삼성전자도 비IT 행사인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부스를 설치하여 이목이 쏠림.

- 구글은 디지털 콘텐츠 장터인 구글플레이에 '도서' 카테고리를 마련해 전자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전에서 출판사와 전자책 콘텐츠 사업자 등과 활발한 상담
-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단독부스를 설치하여 교육 콘텐츠 서비스인 '리더스허브'와 '러닝허브'를 소개
- 삼성전자 부스에서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2의 단말기를 통해 리더스허브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과 Virtual book Shelf와 QR코드로 꾸며진 벽을 통해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콘텐츠존을 운영하여 외국의 출판 관계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임.
- 출판 콘텐츠에도 글로벌 경제위기와 불황의 여파가 작용하여 재테크, 성공, 경쟁 등의 화두는 찾아보기 힘든 대신 균형, 힐링, 가족 등 경쟁논리에 갇혀 잊고 지냈던 가치들을 새롭게 발견하려는 책들이 주류를 이룸.

(2) 독일서적상업학교(Die Schulen des Deutschen Buchhandels) 견학

1) 현황

- 위치 : Frankfurt am Main, Seckbacher
- 주요시설 : 강의실, 실습실, 실습용 모델서점, 출판전문도서관(출판관련 장서 4만여 권), 출판시장연구 전문도서관과 출판디자인 전문도서관 등 2개의 특수도서관, 기숙사, 학생식당, 교육기자재, 학습도구
- 교수진 : 전임교수 10명, 겸임교수 30명 등
- 독일서적학교는 '직업교육법', '출판업 종사자 양성 직업교육에 관한 규정', '출판업 종사자 양성 직업교육 기본교육과정' 등 세 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됨.

○ 역사 개관

- 1946년 라이니시-베스트펠리시주의 출판서적업협회에 의해 쾰른대학 내 전문강좌를 개설하여 서적학교 운영
- 1952년 서적상업협회(출판협회)가 독일서적상업학교(Deutschen Buchhandlerschule)라는 이름 부여
- 1962년 수강생 증가로 규모 확장 필요하여 프랑크푸르트 Seckbacher으로 이전
- 1972년 독일서적거래전문학교가 출판종사자를 위한 기본교육과정의 한 단계 높은 직업교육기관으로 추가되고 재교육을 위한 전문 세미나 등의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들이 개발, 확장됨.
- 1974년 독일서점인학교는 세계 최초로 학교 안에 실습용 모델서점 설립, 1976년부터 세미나 운영
- 1970년대 현재와 같은 네 개의 교육시스템-교육콘셉트 완성
- 1980년대 현장경험을 이론적으로 심화, 체득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전환
- 1980년대 중반 이래 매년 1,000명 이상 수료 후 자격 취득
- 1991년 특수 전문분야의 교육기관으로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어 정부가 사설교육기관에 수여하는 표창 수여
- 2000년대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출판환경변화에 부응하여 모델서점 확장 리뉴얼, 도서관 증축, 커리큘럼 개편

2) 교육 시스템

- 독일서적학교는 '독일서적판매인학교', '독일서적상업전문학교', '재교육을

위한 전문세미나', '통신강좌:서적상업기본과정'의 네 가지 형태의 교육시스템으로 구성됨.

- 독일서적학교는 이와 같은 네 개의 과정을 아우르는 총체적 명칭임.
- 수업과 실습을 통해 실제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숙련도를 심화

○ 독일서적판매인학교

- 직업학교 대체 기본교육과정으로서 직업학교를 다닐 의무가 있는 교육대상자들 중 출판업종사자에게 공공 직업학교를 다니는 대신 3년 동안 880시간의 이론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본과정
- 서적판매 기본과정과 출판영업인과정으로 나뉨.
- 각 기업체에서의 도제식 현장근무를 겸한 실습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음.

○ 독일서적상업전문학교

- 서적판매업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구과정으로 수료 후 서적판매업전문가 (IHK)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 업계의 엘리트 간부를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 볼 수 있음.
- 교육생의 기본 조건은 기본교육을 끝낸 후 서점에서 2년 이상 근무했거나 서적상업계에서 최소 6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24세 이상이어야 함.
- 4개월간 약 620시간 교육으로 총 23주간 4개의 모듈로 나뉜 숙련교육 실시
- (모듈1) 회계·결산 교육, (모듈2) 인사관리, 인간관계 상담 교육, (모듈3) 마케팅 교육, (모듈4) 경제, 법률, 문학 교육 및 상공인회의소 시험 대비 교육

○ 재교육을 위한 전문세미나 과정

- Seckbacher Kolleg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전문적 내용의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와 행사로 진행

- 간부 승진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서점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의 잠재력 계발과 직능향상에 관심을 둬.

- 세미나의 주요 주제 : 출판제작자 숙련세미나, 편집자를 위한 제작기초, 저작권 집중세미나, 출판사의 집중강좌, 원고편집, 출판사 광고기초, 서점의 창업과 확장, 서점내 도서분류, 재무제표 등

○ 통신강좌 : 서적상업기본과정

- 직업학교나 서적학교의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기획된 과정으로 서적상업의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교육내용 : 서점운영론, 경영론, 회계, 문학론 등

3) 시사점

○ 독일에서 출판업 종사자는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후에도 지속적 교육을 받아야 함.

○ 독일서적학교는 '직업교육법', '출판업 종사자 양성 직업교육에 관한 규정', '출판업 종사자 양성 직업교육 기본교육과정' 등 세 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됨.

○ 직업교육에 대한 지출이 출판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으로 독일 출판인들은 서적학교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여 세계적인 출판인 양성기관으로 명성을 쌓았음.

○ 출판업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자 희망하는 분야에서 서로 상이한 미디어시장의 구조와 생리를 배우고 출판관련 기업체들은 이러한 목표지향적인 직업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회적 공감대가 오늘날 독일 출판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

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출판유통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